

Contents

- 01 권두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지역발전
- 03 이달의 논단
① 국제행사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② 국제행사유치와 지역활성화
③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컨벤션산업
- 09 자치단체 탐방
강원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활성화
- 12 자치단체 우수사례
대구광역시-비용효율과 친환경의 이벤트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14 도시통계-대구모 국제행사와 기업경제 활성화
- 18 지방자치단체 동향(7월)
- 19 연구원동정-8월 연구원 소식
- 20 알림마당 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②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KRILA_2011

2011년 8월호

제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25호

발행인 한표환

편집인 뉴스레터 위원회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락처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디자인 인터미디어 성림디앤피

※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e-mail :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에서 Newsletter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두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지역발전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난 7월 초 더반 IOC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평창 지역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평창군과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가 이를 축하하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편 인천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하고 있다. 전남남도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작년에 개최했으며 올해 10월에도 동 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국제행사 및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의 개최는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명백하다. 즉, 국가 및 지역 문화체육 수준의 획기적인 발전과 단기간에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는 홍보효과를 통한 국가 및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 투자·소비지출과 단기간에 많은 수의 관광객과 선수단·취재진의 방문에 기인한 관광수입 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거대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립·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뿐더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와 지역민들간의 단합 및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자본의 축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축적효과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올림픽이나 기타 거대행사는 각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의 각축장이 되면서 행사유치가 지역 및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국의 런던 등 최근의 개최지들은 지역내·지역간 소통과 통합,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과 개발, 지구환경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구적이며,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비전과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수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경기 및 운영시설, 교통통신 시설, 문화관광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의 신축 및 정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의 재원조달문제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건설과 토지이용, 행사 후의 활용방안 등

에 따른 다양한 애로요인 및 갈등유발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어왔고 또 여전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호는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 지역수준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또 이에 추가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거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만의 노력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포괄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대응전략과 이슈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원의 뉴스레터를 통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들이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달의 논단 _ 1

국제행사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제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열정은 매우 뜨겁다. 국제행사가 지역이나 국가의 브랜드를 단기간내에 제고할 수 있고, 지역과 국민적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평창의 경우 뜨거웠던 열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곧바로 집단적 반대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할 것이다. 특히 낙후지역이나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열망이 더욱 강하다.

문화·관광·체육 등 국제행사는 전 국민과 세계인들의 관심을 단기간에 집중시키고, 유치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인프라 등에 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정도로 매력적이다.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등을 단기간에 제고하는 일은 어렵고도 결과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일은 과정이나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대대적인 홍보가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국제행사 유치는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이 드러나고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실패원인을 다른 외부요인으로 돌려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제행사 유치의 유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1,000여개의 지역축제 중에서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나 세계를 붙인 축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

사들 중의 일부는 불과 1-2회를 끝으로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행사도 다수 있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규모만 확대된 무늬만 국제인 행사도 다수가 있다. 계획단계와 행사종료 직후에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관람객과 함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는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및 지역의 체감효과는 실제로 이에 못미치고 실제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거나 과잉투자된 인프라의 운영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실제 공인 등록엑스포인 2000하노버엑스포도 예상보다 적은 관람객수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밴쿠버 등 올림픽 개최도시도 이러한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몇 년전부터 관광분야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관광산업으로서 MICE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 MICE는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의 약자로 일반 관광에 비해서 단기간 참가자나 단위당 지출규모가 큰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라는 인식에 따라 컨벤션 산업의 인프라와 유치에 국가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자금·마케팅·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MICE는 명확한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소관부처의 다양성, 민간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9년 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한 MICE 행사수가 44건이라는 제한적인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지역의 많은 행사들이 국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중에서 실제 참가규모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국제적인 수준은 매우 적다. 예를들어 엑스포라는 명칭의 행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된) BIE 공인엑스포는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¹⁾ 2건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5년주기) 등록엑스포가 아닌 지정엑스포(Recognized

주1) 여수엑스포의 경우 2010 등록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s) 유치에서 상하이와 경쟁에서 실패하였다.

Exhibitions) 수준이다(그렇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은 1회 평균 145,371원을 지출하는 반면에 외래관광객은 1일 평균 약 215,350원을 지출하여 외래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이 개최된다. 모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국제행사의 파급효과에 대한 거품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정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외래관광객에 의한 관광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6,68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79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도 당초 추정한 것과는 달리 외래관광객은 대폭 증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우에도 경주엑스포를 목적으로 한 외래관광객 창출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평상시 경주관광객의 구성비율과 경주엑스포 기간중 관람객의 지역별 구성비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상당수의 행사는 중력모형에 의하여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러번 관람하여 중복 계산되는 문제도 있어 실제 관람객수에서도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규모 행사의 경우 지역의 개최역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도권의 대형기획사 및 단체에 의존하여 오히려 비용은 지역에서 지출하고 수익은 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순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도 많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행사 유치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회성 행사와 지속적인 행사로 구분하여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1회성 행사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인프라는 행사완료후의 다목적 활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행사는 소모성 투자를 자제하고 연차별로 인프라와 콘텐츠를 축적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개최역량을 제고하는데도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하며, 문화행사의 경우 에딘버러 축제의 경우에서 보듯이 조급함 보다는 장기적인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행사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원의 경쟁력이 뒷받침되면 좋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춘천국제마임 축제, 에딘버러 축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듯이 블루오션을 개척하여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성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달의 논단 _ ②

국제행사유치와 지역활성화



서정욱
행정안전부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과장

지난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이루어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무더위에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청량한 기쁨을 선사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에 알려졌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저력이 세계에 입증되었듯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가이미지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는 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소마케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제행사유치와 연계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군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브랜드가 세계화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 첫 국제영화제로 출범하여 문화예술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아시아 영화 최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 타임지 선정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및 세계 5대 영화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함평 나비축제는 생태관광과 어울려 국내 최대의 지역축제로 발전하였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명품 글로벌 페스티벌로 도약하고 있다. 이들 국제행사는 그 자체로서 발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와 끊임없는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 지역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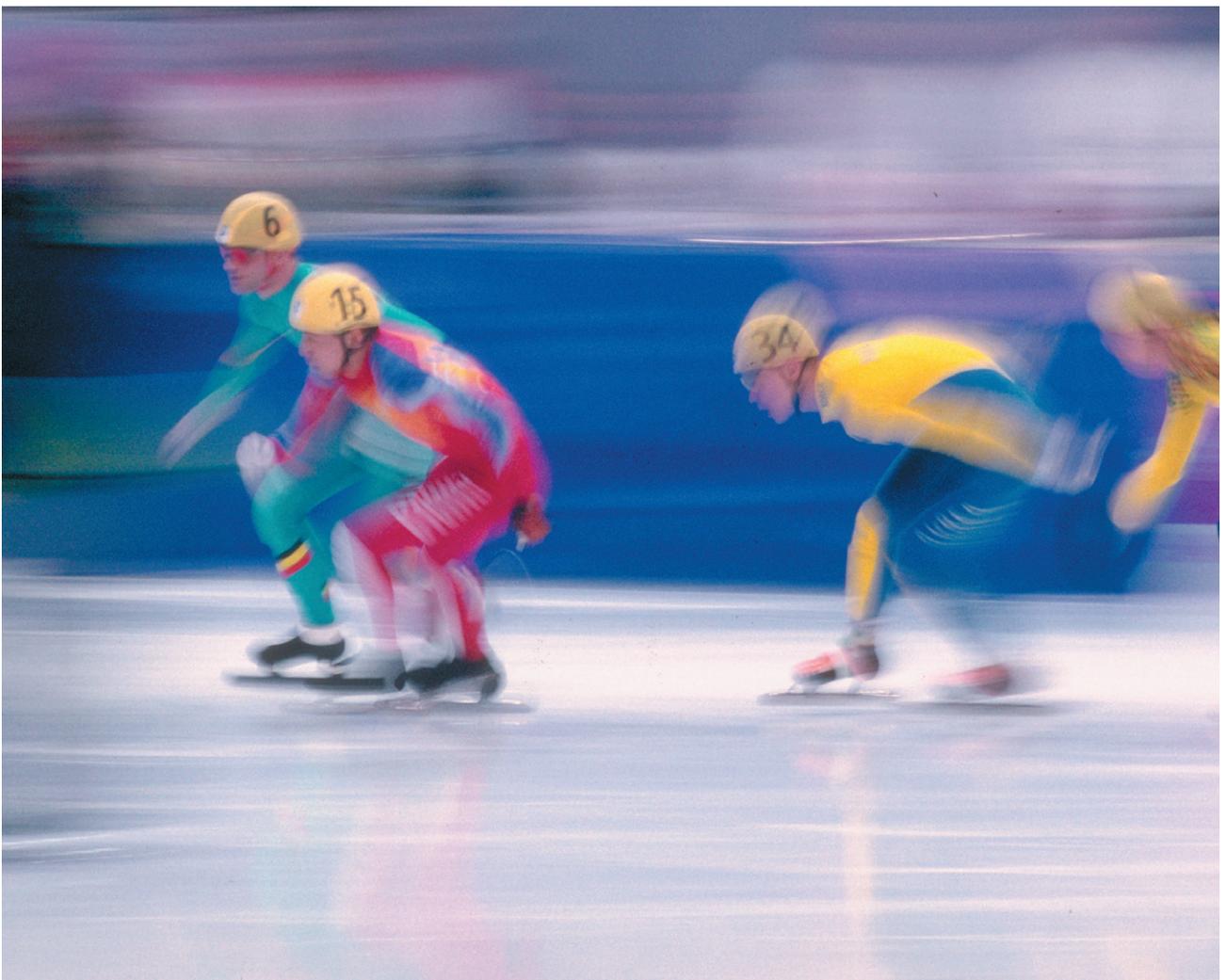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국제행사유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다 이론적 고찰은 세계화·지방화 추세와 경제의 연성화·탈규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차원에서 맞춤형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고유의 특성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행사유치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연결하는 좋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에 기반한 국제행사 유치는 맞춤형 개발전략을 통해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소득기반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정체성을 향상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숙박, 음식업, 지역특산물판매 등 지역상품의 소비가 촉진되어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등 주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지자체의 국제행사유치는 주민들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고유의 장소자산을 매력적인 장소상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행사유치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집단의 희망과 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산·학·연 협조체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로 단편적·획일적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며 각 지역의 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역축제, 엑스포, 박람회 등 차별화되지 않은 주제와 테마로 소모적 행사가 난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사규모·범위의 적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

제행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특성과 강점을 고려해 비교우위의 자원을 집중 개발하고 관련분야로 다각화해 나가는 전략 구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고유성이 반드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성이 매력성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브랜드와 국가브랜드의 연계방안이 중요하다. 국제행사유치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지방브랜드를 명품화하고 이것이 다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가이미지 제고로 선순환되는 긍정적 환류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국제행사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한류문화 체험이벤트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달의 논단 _ ③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컨벤션산업



이미혜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이벤트학과 교수

컨벤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산업중 하나이다. 현재 경기변화에 영향을 받는 타산업과 달리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2009년 정부가 선정한 미래 대한민국 주력산업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되어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적으로 특히 관광산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진 컨벤션산업은 국제기관, 협회 등의 회의와 비즈니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주최 회의와 전시회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컨벤션산업은 관광, 숙박, 식음료, 문화예술, 오락, 교통, 통신 등에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종합산업임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시키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데올로기나 국가적 철학을 넘어서 자국에 비교우위가 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종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신상품 홍보를 위하여 많은 컨벤션이 국가별로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유럽,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의 선진국은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컨벤션 도시지정 등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컨벤션 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컨벤션산업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측면의 다양

한 파급효과때문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벤션산업은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 참가자의 경우 소비지출액이 일반관광객에 비하여 1.95배 높으므로 컨벤션산업은 항공, 숙박 등 관광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국내 컨벤션산업의 규모는 3.3조원이고 컨벤션산업의 생산유발(파급)효과는 직간접효과를 합쳐 6.2조원에 이른다고 하였고, 2010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컨벤션 유치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112억 \$)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둘째, 컨벤션산업은 사회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의 효과가 있다. 먼저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국가 및 지역이미지 개선 및 제고할 수 있다. 개최국 관련분야의 국제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유문화의 세계 진출 기회가 되며, 민간문화의 교류 촉진과 국가 및 지역이미지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정치적 효과로는 개최국의 국제지위 향상, 국가간 정치적 협력 증대, 외교정책적 효과, 국가홍보효과 등의 무형의 부를 창출한다. 그리고 회의 전, 후의 관광프로그램인 관광상품 판매를 통하여 관광비수기 타개, 대량관광객 유치, 양질의 관광객 유치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한다.

현재 UIA는 매년 도시별로 개최된 참가국 5개국이상,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자중 외국인 비율 40% 이상, 회의 기간 3일 이상인 대형 행사수를 집계하여 컨벤션개최도시 순위를 발표하는데 2010년 기준 싱가포르(725건), 브뤼셀(486건), 파리(394건), 비엔나(254건), 서울(2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세계 컨벤션 개최순위에서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 개최순위에서 5위를 나타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서울이 201건, 부산이 93건, 제주가 67건의 컨벤션을 개최하여 아시아에서는 명실상부하게 2위로 자리하였다. 그리고 5년간 컨벤션 개최건수는 87.6%가 증가하여 세계 컨벤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세계와 아시아에서 주요 컨벤션개최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나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컨벤션산업이 자리하도록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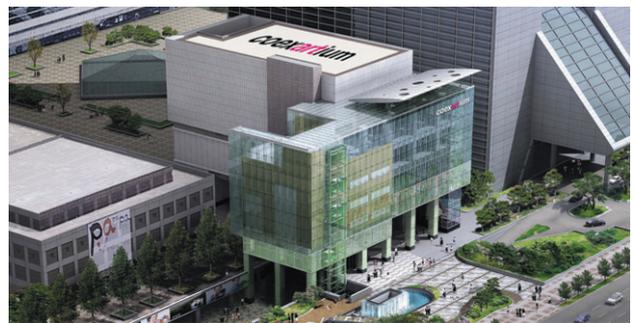
첫째,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제시가 부족하다.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컨벤션 경쟁국들의 경우 범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컨벤션분야별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이를 통합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없어서 범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제시가 어렵다. 둘째, 민간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건별 지원위주에 따른 체계적 지원부재 및 항공사, 숙박시설 미협조 등 컨벤션 관련 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가 부족하다. 셋째, 컨벤션시설운영상 일부 지역에서는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 컨벤션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 컨벤션센터는 주변 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현재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컨벤션산업이 국가 및 지역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컨벤션 관련한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컨벤션산업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행사유치 지원 행정조직, 기획업체, 개최시설, 숙박업체, 식음료시설, 관광지 등 다양한 산업 및 시설이 관련되어 있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즉 컨벤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토대가 되는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지역에 자리한 컨벤션센터의 차별화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컨벤션센터는 서울의 COEX, 경기 KINTEX, 부산의 BEXCO, 제주의 ICCJEJU, 송도 컨벤시아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입지, 인프라, 관광자원 등의 다양한 매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매력적 특성에 적합한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개최도시 이미지를 설정하도록 이에 대한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컨벤션산업은 긍정적인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미지 설정을 위하여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전제되는 인력등에 투자하여 조직적 시스템을 통한 도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긍정적인 이미지의

컨벤션 개최도시로서 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의 트렌드인 친환경적인 면을 지향해야 한다. 이로서 Green Meeting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Green Meeting의 실천방안들을 회의 및 전시시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송도 컨벤시아처럼 LEED(친환경건물 인증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컨벤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현재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컨벤션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는 기본목적은 경제적 차원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라는 점이다.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차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동력산업화하는 오늘의 컨벤션산업을,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내일의 컨벤션산업은 정치, 사회,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고히하여 진정한 컨벤션목적을 훌륭히 수행하는 더 나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거듭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COEX



KINTEX



BEXCO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활성화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공학박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지난 7월 7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최종 선정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후,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단 우선적으로 조직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IOC 규정에는 5개월 이내에 조직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3개월 이내에 조직위 구성을 완료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큰 틀을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위의 구성은, 정부와 도 5:5 비율로 구성될 예정인데, 인원 구성을 고루 분배하여 강원도 각지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서 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5대 원칙을 수립하고, 올림픽 추진에 앞서 산재한 강원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트레이크, 나가노등 모범적이거나 지양해야 할 사례들을 연구하고 활용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명암이 매우 크게 갈리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강원도 내적으로는 많은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만, 국가 예산 지원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정부부처 및 국회와 상의하여 8월중에 올림픽 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기에 통과가 된다면, 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해 올림픽스포츠산업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을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 육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시설 건립비 지원을 통해 강원도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1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유치 성공에 대한 소감과 향후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유치 성공에 대해 많은 성공요인을 꼽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민의 하나된 마음이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치 성공의 기쁨을 뒤로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다섯가지 원칙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 흑자, 환경, 민생, 균형 이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 이벤트 뿐만 아니라 향후 강원도 전체에 득이 되는 올림픽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 올림픽의 원칙은 행사가 도민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민 민생 안정 및 지역의 경제적 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매우 화려한 올림픽이었으나, 이후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내실에 집중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올림픽을 준비할 것입니다.

Q2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려가 조금씩 커져가는 관련지역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투기로 그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은 저 역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올림픽이 도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 급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또한 향후 토지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 확대하여 원활한 올림픽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가 가장 선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사실 알펜시아 리조트 때문에 이번 도전은 절대 저서는 안 되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알펜시아 문제의 해결은 흑자올림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가 하루에 이자로만 지출하는 비용이 1억원이상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올림픽 유치 성공과는 무관하게 재정적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도에서는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며 올림픽 유치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법률 제정 및 투자여건 조성으로 알펜시아의 분양을 활성화 하고, 리조트 운영 수익 증대, 도 추가출자를 통한 민간 자본 유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펜시아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리조트 고급 빌라의 분양이 제법 활성화 됐지만, 아직 알펜시아가 강원도에 주는 재정적 압박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일같이 나가는 이자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의견을 조율중입니다. 외부에는 도와 공사가 충돌하고 있는 보이지만 이는 일의 진행속도에 관하여 조금 생각이 다를 뿐이지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공사 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경제효과가 많은 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강원도의 전반적인 경제수준 향상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일단 경제효과 숫자를 아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와 수치가 어디 한두개였나요. 제 전문분야였던 방송분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IPTV를 도입하면, 종편채널을 도입하면 경제효과가 수십조원에 고용유발 효과만 수십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허황된 얘기로 밝혀졌지요. 최근 있었던 G20만 해도 그렇구요.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다, 나가노나 밴쿠버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표적 흑자사례인 미국 레이크플래시드나 노르웨이

릴리함메르의 성공사례를 연구하여, 이벤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올림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올림픽을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액도 엄청난 액수를 필요로 하지요. 당장 이벤트만으로 5천억이 소모되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무려 25조원이 들어갑니다. 이는 행사 이후에 모두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평창과 그 주변에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하는 방향은 올림픽 이벤트 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고, 각종 시설들이 사후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행사이외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강원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강슬로프 건설에 관하여 환경파괴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5대 원칙중 하나로 환경올림픽을 내세웠지만, 활강경기장의 경우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국제기준에 맞는 곳이 가리왕산 중봉이 국내에 유일한 장소입니다. 환경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이외의 경기장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환경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갈 것입니다. 운영 전반에 있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녹색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환경과 동계스포츠 문화를 함께 가꿔나갈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친환경 발전의 중심지로서 거듭나는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산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 당면한 과제중 가장 큰 문제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지

요.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어가는 고성군을 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어두운 경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 소득 2배 행복 2배의 강원도였습니다. 현재 고성지역에 누적된 손실액만도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는 이후 강원도민 인구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요. 이런 강원도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 경제특구를 설정해 제 2의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북한의 철광석이 매우 싼 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희소광물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우리 남한의 포스코와 합작하여 금속제련 및 부품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강원도를 비롯해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7 선거당시 제시한 공약 3가지중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성공을 했는데요, 나머지 공약인 남북협력과 복지가 이끄는 경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선거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남북협력, 그리고 복지가 견인하는 성장이었습니다. 독립대 등록금폐지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사실 당장 올림픽유치를 성공했다고는 하나, 지금 당장 그 경제효과가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파급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행사와 몇몇 기업들의 유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복지와 남북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원 남부는 국비가, 강원 북부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재, DMZ 접경 지역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 낙후와 동시에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이는 곧 지역 일대 안보문제와도 결부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야 고성 일대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는 강원도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강원도내 자체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었지만,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남북문제는 더 이상 정치나 이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해야하지요. 현재는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먼저 강원도립대 등록금폐지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포폴리즘이라는 공격을 매우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안은 타당성 검토 결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등록금폐지가 아니라 연도별 단계적 추진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면서 그전에 추진했던 사안이 정치권과 얽혀버렸죠. 매우 억울했지요. 도민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 세밀한 조사와 정책수립을 통해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통해 단순한 수혜적,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지가 이끄는 경제성장이지요.

Q8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각오와,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유치성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된 강원도민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원도 역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모처럼만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한발 한발 성공적인 개최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가지고 있던 잠재력에 비해 많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을 잠깐 하고 끝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행복한 강원도를 완성하는 하나의 기폭제로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항상 도지사인 제가 발로 최 일선에서 뛰어다닐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사는 것에 행복과 자부심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강원도의 발전은 모든 도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비용효율과 친환경의 이벤트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 해온 IAAF세계육상선수권 대구대회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가 드디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212개국 6,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달구벌에서 막이 오른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

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월드컵,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등 4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와 대구의 국제사회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관광 스포츠산업 등 대회관련 산업의 발달과 국내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개최도시 대구의 환경과 생활,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이벤트를 개최하여 무형자산 가치상승을 통한 대구의 글로벌화와 관광명소화를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5,87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특징적 노력들은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여타의 국제행사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상당수 대규모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범한 '외화내빈'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대구시가 표방하고 있는 앞서의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용효율적 경기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02년 FIFA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건설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시설투자 없이 IAAF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하여 준비운동장, 시민운동장 등을 기능별 공간재배치, 내부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준비하는 한편, 선수촌의 경우 민자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등 비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에 대구시가 모색해 온 친환경적 도시정책의 노력을 IAAF의 그린 프로젝트와 접목하여 친환경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재활용 에너지자원의 활용노력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솔라시티-대구(Solar City-Daegu)'로 지정된 이후, 세계솔라시티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2006년에는 수질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포럼의 환경상 수상,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EC) 유치 등으로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대구



〈표〉 그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요 추진계획

친환경대회운영	친환경대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 감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물자절약운동(e-reports 활용 등) - 자원순환형 시스템구축(분리수거, 리필제품 활용) - 친환경제품 사용 ○ 친환경 경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ad Race 선수유도차량 전기자동차 활용 - Green 수송시스템 운영 - 자전거타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4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스타디움, 선수촌아파트, 지하철도, EXCO ○ Green 교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확충 - 마라톤코스 클린로드사업 - 녹색생태형 주차장 건설
대회유신(기념)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기념 숲 조성(IAAF & Gold Park) 나무심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수(종목별 메달리스트, IAAF 집행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Sports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Sports 활용 다양한 홍보물 개발 - 홈페이지 Green Project 홍보 ○ 시민참여 환경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날' 행사연계 홍보부스 운영, 친환경상품 구매

시는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그린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시설의 확충, 친환경자동차 운행, 자전거 이용 제고,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 그린수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자절약 등 환경영향감소 운동과 금메달리스트들의 기념식수 공원 조성을 비롯한 나무심기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이벤트라도 성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 특히 행정의 자발적인 애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회주제가를 핸드폰 비즈링

(Bizring)으로 설정해 홍보를 하고 있는 사례, 휴가를 낸 일부 공무원과 유학중인 공무원들이 경비를 자체조달하면서 외국에서 홍보순회활동을 벌인 사례, 그리고 한 공무원의 경우 지인들에게 보낸 '대회참여호소' 편지가 페이스북에 링크공유되면서 국내는 물론, 미주, 일본 등지의 교포들로부터 수많은 응원메세지를 받는 등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례 등은 대회준비과정을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국민들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들 중에서도 이러한 차별적인 특징들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또 향후 국제스포츠이벤트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도시통계

대규모 국제행사와 기업경제 활성화

전대욱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박승규
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주요 관광지의 내국인/외국인 방문객 합계는 2009년에 비해 2010년 총 분기에서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에 비해서 평균 8% 방문객이 증가하였으며, 1/4-2/4분기는 외국인에 의한 방문객수가 증가하였으며, 3/4-4/4분기는 내국인에 의해 방문객수가 증가가 주도됨

〈표 1〉 관광지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9	2009	2009	2009	2010	2010	2010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내국인	112,909	190,281	271,449	150,105	115,285	192,500	296,983	181,094	105,214
외국인	1,858	2,521	2,365	2,617	1,987	2,619	2,563	3,102	1,452
합계	114,768	192,802	273,814	152,722	117,273	195,119	299,547	184,196	106,667

- 또한, 증가세의 내/외국인 관광지 방문객 수요에 대해 숙박업, 여행업, 시설업, 회의업 등의 연관산업의 등록 및 지정 현황이 증가함
 - 이중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등록건수는 가장 큰 연평균 증가세를 나타냄
 - 특히, 국제회의에 관련된 사업은 2003년에 비해 시설업 등록은 11.1%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단위 : 수(객실, 등록/허가), 명(인원),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체 등록(개소수)	655	685	703	731	777	814	838	861
	업체 객실수	83,205	88,014	89,414	91,973	96,638	103,513	108,454	112,016
여행업 등록건수		8,604	9,046	9,623	11,148	10,681	12,003	11,968	13,182
유원시설업 등록건수		225	229	226	161	229	217	235	241
관광편의시설업 등록건수		1,114	1,451	1,229	1,365	1,770	2,326	2,789	3,139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	102	134	149	195	195	241	232	246
	국제회의 시설업 등록	4	4	5	5	8	6	9	10
카지노업	카지노업 허가건수	14	14	14	17	17	17	17	17
	입장객수 (천명)	2,178	2,461	2,456	2,782	3,628	4,191	5,867	5,037
	매출액(억원)	10,535	11,744	12,448	12,817	15,948	18,213	27,424	22,626

- 관광수지는 방한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수입)과 국민 해외여행객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2007년을 local minimum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원화강세와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내국인 해외여행과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은 109억 불 관광수지 적자 기록한 이후 2008년 49억 불 적자에서 2010년 35억 불 적자로 점차 개선됨
 - 따라서, 관광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이 필요함

〈표 3〉 관광수지 동향

단위 : 억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관광수지	-1.7	-31.2	-29	-38	-62.3	-85.8	-108.6	-48.6	-12.6	-34.6
관광수입	64	59	53	61	58	58	61	97	98	97
관광수입 성장률(%)	-6.4	-7.1	-9.7	13.3	-4.3	-0.6	5.7	59.5	0.7	-0.6
관광지출	65.5	90.4	82.5	98.6	120.3	143.4	169.5	145.8	110.4	131.9
관광지출 성장률(%)	6	38	-8.7	19.5	22	19.2	18.2	-14	-24.3	19.4

- 국제회의 개최건은 성장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2003년 이후 개최건의 감소를 나타내지만 최근의 감소세는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재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한 통계임을 감안해도 세계적인 국제회의의 목적지로서 부상함
 - 특히 2010년에는 전년대비 117건 증가해 33.7%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한국의 국제회의산업은 성장하고 있음
 -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10년 총 11,519건이며, 우리나라 세계순위는 2008년 12위, 2009년에는 1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는 전년대비 3단계 상승한 8위로 부상하였고, 아시아순위는 2010년 3위를 기록함

〈표 4〉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단위 :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개최건수	109	134	123	160	140	206	243	268	293	347	464
세계개최건수	9,433	9,259	9,214	9,445	9,160	8,953	8,871	10,318	11,085	11,503	11,519
세계순위	24	18	18	26	21	16	16	15	12	11	8
아시아순위	4	3	4	4	4	4	3	3	3	3	3

-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 확정에 따라 많은 외국 관광객의 유입과 연관 산업의 발달이 기대되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소 및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체육시설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현행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인 전문체육시설과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구분됨
 - 2010년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수 15,137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1,169개소(5,295,042m²)가 증가함

〈표 5〉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단위 : 개소, m²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 체육 시설 수	계	6,146	6,721	6,901	7,863	8,717	9,949	10,946	12,342	13,968	15,137
	축구장	97	132	162	197	250	315	395	467	558	618
	체육관	307	335	313	343	385	476	586	529	581	639
	간이운동장	5,042	5,481	5,596	6,420	7,069	8,026	8,691	9,531	10,669	11,458
	테니스장	163	192	233	256	287	335	376	428	487	549
	기타	537	581	597	647	726	797	898	1,387	1,673	1,783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1.03	1.09	1.32	1.92	2.16	2.38	2.54	2.88	3.12	

- 또한 국내외 행사에 대비하여 현재 증가세인 시설공급과 더불어 관련 스포츠산업의 규모 역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2년 대비 2007년 전체 약 68%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중 스포츠정보업은 2002년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스포츠의 발전에 대한 동반 성장을 의미함
 - 또한 시설운영업과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세가 각각 85%, 156%를 나타내어 스포츠사업 개척로 인하여 수익성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표 6〉 스포츠산업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계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유통업	시설건설업	시설운영업	스포츠경기업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2002	138,112	19,594	21,591	10,791	45,879	34,740	375	5,142
2003	178,822	16,707	5,469	6,792	50,623	93,552	375	5,304
2005	196,508	18,037	9,900	7,848	71,395	79,996	421	8,911
2006	223,632	21,454	14,531	8,095	83,135	81,622	436	14,359
2007	232,698	21,890	14,990	5,287	84,820	89,203	487	16,021

- 따라서, 국내외 회의 및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산업의 성장으로 우선적으로 견인되며, 이를 통해 지역 소득의 증가로 파급됨
 - 국내외 행사로 인하여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은 관광 산업이며, 주요 관광 산업으로는 여행업, 시설업, 회의업 등으로 구분됨

〈표 7〉 지역별 주요 관광 산업

단위 : 개소

분류	상세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행업	국외여행업	1,066	543	228	112	186	226	101	718	152	145	176	181	190	181	287	55
	국내여행업	2,905	364	213	100	184	209	92	627	166	164	216	184	260	211	311	212
	일반여행업	721	34	13	11	15	8	6	50	16	11	3	22	11	7	13	62
국내외 여행업	관광호텔업	130	50	23	39	20	23	7	81	35	23	17	14	27	46	35	51
	수상관광호텔업	-	-	-	-	-	-	-	-	-	-	-	-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	-	-	-	-	-	-	-	-	-	-	1
	가족호텔업	7	1	-	1	-	-	1	1	6	1	1	4	7	-	7	15
	휴양콘도미니엄업	-	4	-	1	-	-	-	15	55	7	10	7	6	14	8	37
관광객이 용시설업	전문휴양업	-	1	-	-	-	-	-	4	1	-	3	1	2	1	-	25
	종합휴양업	2	1	1	1	-	-	-	3	7	1	1	-	1	1	1	-
	자동차야영장업	-	-	-	-	-	-	-	1	1	-	-	-	1	-	-	-
	관광유람선업	1	4	-	5	-	-	-	-	1	-	-	3	3	-	3	5
	관광공연장업	1	1	-	-	-	-	-	-	-	-	-	-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81	10	1	2	-	-	-	17	-	-	-	-	-	6	-	4
국제회의업	138	12	3	-	-	2	-	-	-	-	-	-	-	-	-	-	
카지노업	3	2	-	1	-	-	-	-	1	-	-	-	-	1	-	8	
유원시설업	11	17	10	9	4	2	6	50	28	14	16	12	19	11	13	13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5	6	-	-	-	-	-	-	-	-	-	-	-	1	-	12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7	12	25	3	3	-	8	111	1	-	-	21	2	13	26	1
	관광식당업	721	123	50	87	37	31	38	310	35	24	28	35	12	31	60	37
	시내순환관광업	1	1	1	1	1	1	1	1	1	-	-	1	1	1	-	-
	관광사진업	12	5	-	-	-	-	-	-	-	-	-	-	-	-	-	1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	-	-	-	-	-	-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	-	-	-	-	-	-	-	-	-	-	-	-	-	-	-
	관광극장유희업	32	21	9	21	9	10	6	143	10	6	9	7	3	7	18	4
	관광펜션업	-	-	-	3	-	-	-	-	43	12	23	8	4	16	20	44
	관광케이블카업	-	1	-	-	-	-	-	-	2	-	-	1	2	-	-	-
	한옥체험업	1	-	-	-	-	-	-	-	-	1	1	5	1	-	-	-

지방자치단체 동향(7월)

하동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혁신도시 이전 기관, 전북에서 첫 합동 착공식 거행(서울신문 7월 12일)

-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수산대학 등 5개 농업기능군은 7월 21일 합동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 지금까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착공식을 거행해 왔으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전북에서 합동 착공식이 이루어짐
- 지금까지 전주시와 완주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 이전에 반발하여 이전 기관들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할 방침임. 대상 농업기능군도 착공식을 계기로 곧 토목공사에 돌입할 계획임.
-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이번의 합동 착공식을 계기로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되었고, 다른 기관들의 이전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 다른 이전대상 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한국농수산대학도 2012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임. 국민연관관리공단은 최근 입지 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 12개 기관들이 모두 이전하면 인구 3만명이 거주하게 될 혁신도시의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됨.

▶ 인천시 9월부터 유연근무제 실시(서울신문 7월 12일)

- 인천시는 8월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시행하고, 9월부터 일선 구·군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임. 유연근무 방식은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의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차 출퇴근형은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1~2시간 앞당기거나 늦추는 형태이며,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 범위에서 하루 2~12시간까지 공무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임
- 인천시는 지난달 공무원 1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의 82%가 참여하기를 희망했고, 근무 유형으로 44.1%가 시차 출퇴근형을, 21.1%가 근무시간 선택형을 선호하였음. 참여 이유로는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41.9%), 자녀 육아(26.1%)와 대학원 진학 등 자기계발(21.6%)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고, 불참 사유로는 보수·인사상 불이익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각각 40.8%와 40.1%를 차지,
- 유연 근무제의 실시로 육아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가 적용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부서장들의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기초자치권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 본격화(서울신문 7월 19일)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논의작업에 돌입하기 시작함. 제주도가 상정하고 있는 일정에 따르면, 먼저, 이달 한국행정학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맡겨(7.18 기자회견)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 셋째 대안이 나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 모형을 확정, 2013년 6월까지 도의회 동의와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2014년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할 방침임.
- 이번 용역에는 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장단점 진단·분석, ②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준자치제, 대동제 등 다양한 기초자치권 도입 방안의 검토, ③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과 국회, 중앙 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 제시 등 답길 예정임
- 우근민 제주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단일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기초자치권이 사라져 주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기초자치권의 부활을 공약한 바 있음.



연구원동정

8월 연구원 소식

▣ □ 2011 제2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연구회

- 일시: 2011. 8. 25(목) 15:30~18:00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세미나실
- 주제: 한·일 방재 사례연구
- 발표: 각 기관 1인
 - 한국 측: 유재욱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장)
 - 일본 측: 横田 眞二[요코타 신지] (총무성 소방청 방재과장)

○ 주요 프로그램

- 세션 1: 한국 측 발표
 - 실전중심 민방위시스템 전면 보장 (유재욱)
- 세션 2: 일본 측 발표
 - 동일본 대지진 피해사례 및 소방활동 (요코타 신지)

▣ KRIIA 교육연수 [담당자: 이혜선/ 02-3488-7353]

제 5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8.24(수) ~ 26(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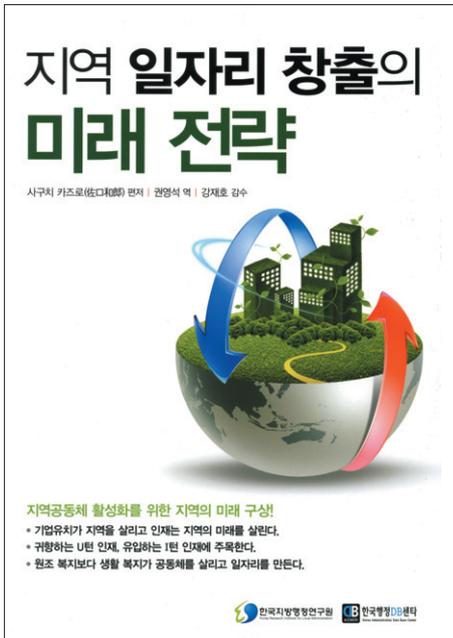
제 3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일시: 8.31(수) ~ 9.2(금)
- 참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번역서 발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을 발간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산업·고용'을 창출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일본의 성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인구 12만 명의 오타현 분고다카다(豊後高田), 시가현의 나가하마(長浜)에 한 해 동안 2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경이적인 사실'이 바탕이다. 특히, 이 책은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선진사례를 제공하는 본 책자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부심하고 있는 한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현재 연구 중인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의 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부족지역의 고용창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성과가 지방정책 수립과 적용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개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 의정연수센터

운영방법

- 대상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무원
- 방법 ① 방문교육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대상자와 교육장소, 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 · 의정연수센터 교수진이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② 집합교육 : 교육 신청하여 연구원에 방문하셔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 방문교육

개요	세부내용		
기간	1일~2일		
교육 과정	지방재정력 분야	지방재정관리 혁신	고령화사회와 지방재정 운영전략
			성과중심 예산제도 운용 및 활용방안
			지방재정 위기와 대응방안
	지방경쟁력 분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광특회계 운영과 지방의 대응
			공공감사체계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컴퓨터활용 감사기법
			감사계획 수립방법 및 감사기법
			성과관리 개요와 자체평가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성과평가 지표개발의 원칙 및 방법
지표개발 실습			
지표별 가중치 설정과 평가기법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의 이해			
지역경제발전 분야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운영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운영과 지속방안
		지역발전의 현재 및 미래환경의 이해	
		광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지역개발 자원	
		창조 지역발전의 이해, 연계 협력 및 광역화	
		미래 특화발전 전략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 · 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1일과정 : 1인당 10만원 /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교육과정

• 집합 교육

개요 기간	세부내용			
교육 과정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1일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업예산제도 : 사업예산 운용요령 · 성과예산 편성방법, 성과관리	
		2일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복식부기회계제도 : 발생주의 이해,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정보 활용	
		3일차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편성방법 재정분석과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지방의 대응 최근 지방재정 변화 동향	
		주민자치센터	1일차	주민자치의 이념과 철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방법 ·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역할
			2일차	마을행사의 기획과 운영 · 우수사례 소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3일차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입과 활용방안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1일차	기후변화가 주는 파급효과 : 자원고갈과 에너지 기후변화와 생존위기 : 대응과 재난안전 녹색성장의 내용과 정책방향
			2일차	탄소배출 저감사례와 적용방안 : 교통 및 도시계획 지역에너지 자립사례와 적용방안 : 주거 및 산업 지역녹색성장 및 에너지 실천계획
			3일차	대안모색 I :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사례와 적용방안 대안모색 II : 지역녹색공동체 형성 방안 지역녹색성장 · 에너지 기본구상
	지역공공디자인		1일차	지역공공디자인의 이해 지역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디자인수법 적용 방안
			2일차	우수 지역공공디자인 사례 견학
			3일차	국내 · 해외 우수사례 소개(공공시설물 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지역공공디자인 개선방안
	교수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대학교수 및 중앙 · 지방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교육비	3일과정 : 1인당 19만원 (※ 주민자치위원 2일과정 : 1인당 15만원)		

※ 교육이수 실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령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7호)에 따라 '상시학습 수료'로 인정

알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소식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른쪽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메일 : yjtak@krila.re.kr
- 전 화 : 02-3488-7361